

흐르는 책정보 '홈페이지'에 모은다

영진·한울·삼성 등 개설 ... 매출과 직결되는 가상공간으로 인식

인터넷이 출판 환경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리라는 기대(?) 속에 국내 출판사들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도 점차 적극성을 띠고 있다. 영진출판사와 도서출판 한울, 삼성출판사가 이미 인터넷에 자체 홈페이지를 올렸고 민음사, 고려원이 내년 개설을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내년 쯤에는 작업을 시작해보겠다"는 출판사도 적지 않다. 문학동네가 출판사 공동의 웹사이트 구축을 내걸고 공동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가 하면 문학아카데미는 전용회선 없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방안을 공모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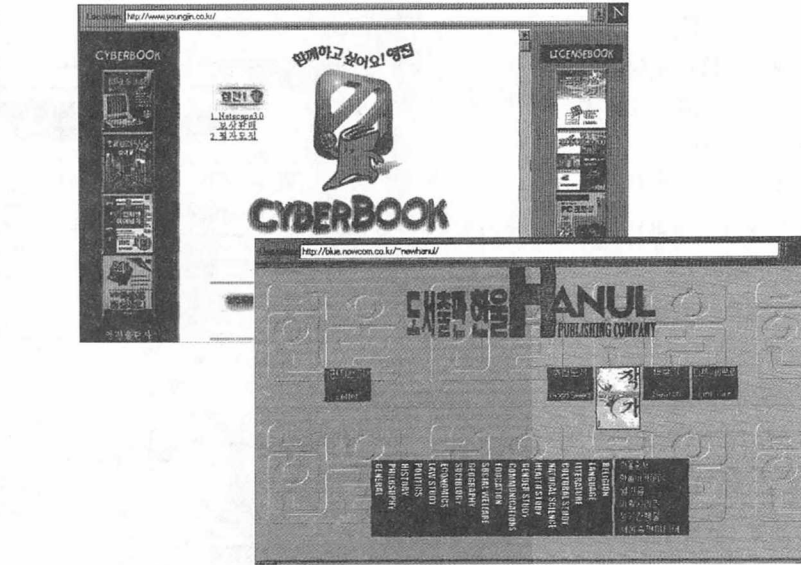
국내 출판사들의 홈페이지

현재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우리나라 출판사 홈페이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를 갖춘 것은 영진출판사(대표 이문철)의 홈페이지이다. 지난 9월 10일 개설했는데 컴퓨터 책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답게 국내 출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전용 서버를 구축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youngin.co.kr>

올해 1월부터 10명으로 홈페이지팀을 따로 구성해 작업에 들어갔는데, 현재 2500개에 이르는 주제별 항목을 갖추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설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온라인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와 '정보사냥' 등이 눈길을 끄는데 특히 온라인 도서관에는 인기리에 판매중인 《원도우 95 바이블》 전문을 무상공개해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영진 홈페이지를 다녀간 네티즌들은 개설 2개월 만에 약 8천명.

삼성출판사(대표 김진용)의 홈페이지는 이 회사 멀티미디어팀에 소속된 이은택씨가 홈페이지를 공부하면서 실험적으로 만든 것이다. 삼성출판사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모두 수록하고 있지만 회사차원에서 한 작업이 아니라 후속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찾는 사람이 드물다. 홈페이지의 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보의 관리 유지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삼성측은 단행본이 아닌 컴퓨터 잡지(How PC)의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상에 자신의 주소인 도메인(Do-



'한울'과 '영진출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main) 등록을 하고 전용선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 드는 비용은 만만찮다. 기초 장비 구입비가 작게 잡아도 2천만원. 외주 업체에 의뢰할 경우 제작비만 한 페이지당 10~20만원으로 상용 페이지를 100페이지로 하더라도 비용은 천만원 단위를 훨씬 넘는다. 초기투자비만도 약 5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며 인건비, 전용회선 사용비 등 매달 들어가는 돈도 무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니 최소의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한울(대표 김종수)에 대한 출판사들의 관심이 높다. 인터넷 제작을 책임진 사람은 기획실장인 이규성씨. 나무누리가 제공하는 인터넷 계정 서비스를 이용, 월 2만원의 사용료만 지급하고 10메가바이트의 용량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 전용서버가 없는 탓에 주소가 길다. <http://blue.nowcom.co.kr/~newhanul>이 주소. 출간한지 오래된 책들에 대해서는 목록을 통해 서지사항만 알려주고 최근 나온 책들의 경우 보도자료 수준의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책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록하기도 하는데 《꼭 알아야 할 건강상식 105》의 경우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 내용을 함께 수록했다. 외국의 출판 관련 사이트와 연결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과 홍보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용 서버를 구축하지 못한 홈페이지의 한계

국내 출판사들의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인터넷이 단순한 정보 네트워크에서 유통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홈페이지 개설은 출판계의 또다른 과제로 등장한다. 인터넷이야말로 국내 출판정보를 국내외에 알리고 매출로 연결하는 가상공간이기 때문이다.

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한정된 용량과 출판사와 사용자의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형 구성이 사용자들의 관심을 오래 끌지 못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규성씨는 "시장성과 출판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단독 서버를 구축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의견을 밝힌다. 비록 한계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홈페이지도 홍보효과와 자료적 가치는 1년에 한 번씩 만드는 도서 목록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한울 역시 시기를 봐서 전용서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출판계공동 서버 구축 고려해 볼만

고려원(대표 김낙천)은 내년초 개설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58기가바이트 정도의 전

용서버를 구축할 예정. 아쉬운 것은 단행본의 데이터베이스화는 포기하고 홈페이지의 용도를 주로 어학교재의 홍보와 전자상거래에 둔다는 점이다. 민음사(대표 박맹호)도 현재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레이아웃 작업 중이다. 자체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외부 전문업체에 제작을 의뢰했다. 전용서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제작업체의 전용서버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자사 출판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출판계의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한편 전자도서 유통까지 해낸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과나 필요성을 부정하는 출판인은 거의 없다. 다만 출판사의 영세성이나 다양하지 못한 유통채널, 인터넷 네티즌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우리 출판계 안팎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 출판사들의 홈페이지 개설 작업이 과연 시기적절한 것인가하는 회의적인 시각은 적지 않다.

문학동네(대표 강태형)가 단독 서버 구축을 포기하고 업계 차원의 공동서버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당초 문학출판사들에 한정해 공동서버 구축을 계획하고 관련 출판사를 모집하던 데서 최근 범위를 전 출판계로 넓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출판사는 모두 10군데. 이 구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쯤에는 우리 출판계 최대의 웹서버인 'Book Web'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이 이미 단순한 정보 네트워크가 아니라 유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내년이면 우리 출판시장이 개방된다는 사정을 염두에 둔다면 홈페이지 개설은 이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우리 출판계의 또 하나의 과제다. 인터넷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출판정보를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매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상 공간이기 때문이다. 출판계 전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인만큼 전체 이익을 위한 공동의 서버를 구축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기대도 갖게 된다.

—박남정 기자